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S&P 500 기업 중 약 28%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4%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 CPU 수요 증가 전망에 반도체 업종 실적모멘텀 재차 상향폭 확대. 그 밖에 소재(전력망 및 인프라 재건 수요 등으로 구리 상승) 및 금융, 유틸리티 상향폭 확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1Q 실적 서프라이즈(아날로그 반도체 바닥 통과), 산업용 및 차량용 재고 조정이 끝나며 매출 전년비 19% 급증, 특히 임베디드 프로세싱 수익 3배 이상 증가

인텔: 1Q 매우 강한 서프라이즈(AI PC의 필수적 존재감), AI PC용 CPU 수요가 폭발하며 클라이언트 그룹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파운드리(IFS)의 기술적 로드맵 안착이 신뢰

램리서치: 서프라이즈 기록, AI 제조를 위한 식각(Etch) 장비 수요가 늘며 연간 웨이퍼 제조 장비 시장 전망을 $1,400억으로 상향, HBM과 차세대 패키징 투자가 실적을 견인 중

GE버노바: 역시 강한 서프라이즈, AI 데이터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냉각 시스템 수주 역대 최고치, 엔비디아 루빈 등 차세대 칩 출시를 앞두고 고부가 냉각 솔루션 비중 확대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반도체**(AI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하며 HBM, 서버용 D램, eSSD, CPU 수요가 동반 폭증), **독립전력 및 신재생**(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임계치에 도달하며 독립 발전 사업자들의 계약 단가 상승), **금융 및 자본시장**(IPO 및 M&A 딜이 재개되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컨센서스를 15% 이상 상회, 또한 NIM 측면 고금리 수혜), **소재 및 금속/광업**(인프라 재건 수요,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며 채굴 기업들의 마진이 확대)

하향 업종은 **항공 및 운송**(유가 급등에 따른 마진 압착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소비자 금융 및 모기지 리츠**(고금리 우려), **자동차 및 부품**(전기차 수요 둔화 지속 및 할부 금리 부담), **의류, 사치품 및 개인용품**(루이비통 등 사치품 기업 1분기 실적 미스, 중산층의 소비 절벽 및 가성비 현상)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램리서치, 선커에너지, 마라톤 페트롤리엄, 버티브홀딩스, 엑슨모빌, 글렌코어, 프롤로지스, 발레로에너지, GE버노바, 웰타워, TSMC, 아람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AMD, 넷플릭스, 유나이티드헬스, GE, 쉘, 시티그룹, 토탈에너지스, 지멘스에너지, 서모피셔,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노코필립스, 뉴몬트, 시게이트, 프로수스

하향 주요 종목은 TC에너지, 프록터앤갬블, 콘스텔레이션에너지, 블랙스톤, 코인베이스, 보스톤사이언티픽, 테슬라, 프리포트맥모란, 캐피탈원, 나이키, 혼다, HSBC, 도요타, 소프

트뱅크, 어보트랩, 핀둬둬, 샤오미, 로빈후드마켓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2Q26F OP는 193조원 (1W +5.9%, 1M +29.6%, QoQ +38%). **2026E OP**는 823조원 (1W +5.7%, 1M +27.8%, YoY +174%),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연간 실적 모멘텀 확대. **2Q26F OP 상향 업종**은 반도체, 정유, 기계, 섬유의복, 화장품. **하향 업종**은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음식료, 방송엔터, 건자재, 자동차, 방산, 화학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2Q26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SK,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HMM, 에이피알 상향. LG엔솔, 현대차,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LG화학,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포스코퓨처엠, LG 하향

2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OCI홀딩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S-Oil, LX인터내셔널, 코스모신소재, 서진시스템, 유한양행, LG이노텍, NH투자증권, 이마트, 고영, 미래에셋증권, 대한전선, 에이피알, 한화, 효성티앤씨, SK, 로보티즈, HMM, NC, 고려아연, 펄어비스, 삼성전기, 크래프톤, 하나마이크론, 삼성증권, 키움증권, LG씨엔에스, 솔브레인, 에스티팜, 한화엔진,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 영원무역, 심텍, 피에스케이, HPSP, 한전KPS, 삼성E&A, 한화생명, BNK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대덕전자, 카카오뱅크, 대주전자재료, 팬오션, 코웨이, LS, 한미약품

외국인은 중형주, 코스닥, 성장주 집중 매수하며 알파 전략.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1.8조원, 코스닥 +4,8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철강, 건설, 기계, 상사. **순매도 상위 업종**은 상호미디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연기금은 중형주 및 코스닥 매수하며 알파 전략.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700억원, 코스닥 -65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상호미디어, 보험, 호텔레저, 건자재, 가구. **순매도 상위 업종**은 상호미디어, 보험, 호텔레저, 건자재, 가구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4.27일(월)

- / 온 세미컨덕터 (오후 9:00), 도미노 피자 (오후 9:00)

28일(화)

한국 4월 소비자동향조사(CSI) (오전 6:00 - 한국은행), 미국 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오후 10:00),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00) / 알파벳(구글) (29일 오전 5:00), 메타 (29일 오전 5:05), 비자 (29일 오전 5:10), 스타벅스 (29일 오전 5:15)

29일(수)

한국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오전 6:00 - 한국은행), 미국 1분기 GDP(속보치) (오후 9:30 - BEA), 미국 3월 잠정주택판매 (오후 11:00) / 마이크로소프트 (30일 오전 5:10), 아마존 (30일 오전 5:15), 포드 (30일 오전 5:15), 삼성전기 (오후 2:00 예정)

30(목)

한국 3월 산업활동동향 (오전 8:00 - 통계청), 중국 4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오전 10:30), 미국 3월 PCE 물가지수 (오후 9:30 - BEA), 미국 연준 금리 결정(FOMC) (5월 1일 오전 3:00) / 삼성전자 (오전 9:00 - 부문별 확정 실적 및 HBM 공급 현황 발표), 애플 (5월 1일 오전 5:30), 일라이 릴리 (오후 7:45), 네이버 (오전 9:00 예정)

31일(금) - 한국, 중국, 홍콩 증시 휴장 - 근로자의 날

한국 4월 수출입동향 (오전 9:00 - 산업부), 미국 4월 고용보고서 (오후 9:30) / -

Quant Comment

주말 사이 미-이란 2차 협정 불발과 트럼프 대통령 만찬 테러 해프닝 등은 비트코인 시세에 큰 영향 없음

지난주 금요일 VIX 지수 -3%, 달러인덱스 -0.2%,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bp, SOX +4.3%, 브렌트유 105.3달러(+0.3%) 등 대체로 위험선호 부각 흐름 지속 전망

미국 85%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모멘텀 지속, 반도체 및 유틸리티, 금융, 소재, 에너지 등 위주 실적 상향

화~목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로 실적 모멘텀 지속 구간, 다만 수~목 미국 FOMC(동결 컨센) 3월 PCE(전월대비 완화 컨센) 이슈는 금리 하락 방향성 요인

코스피 2Q OP 193조원 예상, QoQ +38%, 컨센서스 상향 지속, 반도체 외에 기술하드웨어, 정유, 화학, 조선, 방송, 방산, 게임, 가전, 유통, 전기장비, 비철금속 등 위주 성장성 부각 시기

외인 및 연기금 모두 베타(지수)보다는 알파(종목) 베팅에 주력하는 모습이 뚜렷, 2분기 실적모멘텀이 높은 위 본문 포함 기업들 위주로 관심 필요